

완도수목원, 국제 위상 갖춘 난대수목원으로 조성한다

1872억 규모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확정...전국 난대림 35% 차지 400ha 부지에 5개 권역 조성...전시·관람지구, 서비스·교육지구 등

산림청의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완도가 최종 선정됐다. 완도는 자연조건은 물론 산림식생, 대상지 확보, 기반시설 완비, 지역사회 상생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수목원 전문기관인 신구대와 (주)유신이 수행한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종합평점 94점, B/C(경제성분석) 0.84, 예상 방문객 35만명으로 분석됐다.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은 한반도 최대·최고의 난대 숲과 770여 종의 자생식물 등 원시 난대 생태계를 온전히 보존해 살아있는 식물박물관(Living Museum)으로 조성되며, 4계절 푸르고 난대 생물자원 및 전문과학 교육도 이뤄질 수 있는 수목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부지 규모는 400ha로 전시·관람지구와 서비스·교육지구, 보존·복원지구, 연구·지원지구, 배후지원시설 등 특성화된 5개 권역으로 구성되며, 4계절 전시온실을 비롯 기후연구시설(파이토타론), 연구·교육·서비스동, 주제 전시원, 모노레일, 방문자센터 등을 구축하는데 1872억원이 투자된다.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2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은 전남 그린뉴딜과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난해 전남도에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제안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경제효과 1.2조원, 고용유발 1만7000여명으로 나타나 전남 그린뉴딜과 블루이코노미 성공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된 완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3456ha(전국 면적의 35%)의 난대림이 분포, 전국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구실잣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수달·삿, 황조롱이, 북방산개구리 등 법정 보호종을 포함한 872종의 동물도 서식하는 등 난대림 원시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다.



한반도 최대 최고의 난대 숲과 770여 종의 자생식물 등 원시 난대 생태계를 온전히 보존해 오고 있는 완도수목원이 '살아있는 식물박물관(Living Museum)'인 국립 난대수목원으로 탈바꿈한다. 사진은 완도수목원 이열대 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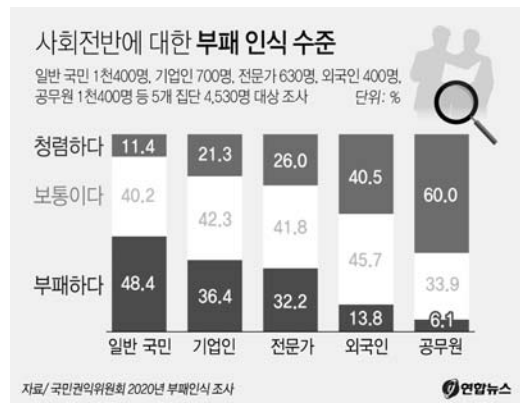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018년 지사 후보자 시절 '한반도 아열대의 대응과 싱가포르 가든스 바 이더 베이와 같은 국제적 규모를 갖춘 수목원 조

성'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대상지로 완도가 선정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

한다"며 "한반도 아열대화 대응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최고의 난대수목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국민 43.3% "우리 사회 불공정"

권익위,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기업인·정당·입법 분야, 가장 부패 정부 투명성, 코로나 대응에 기여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공무원들은 절반 가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 인식 차이가 크다는 뜻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일반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5개 집단 4530명을 대상으로 6월과 10~11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수준을 묻은 결과, '부패하다' (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답받은 일반 국민(48.4%)이 가장 높았고 기업인(36.4%), 전문가(32.2%), 외국인(13.8%), 공무원(6.1%)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일반 국민 가운데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이 지난해(63.0%)와 비교해선 큰 폭으로 줄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사회분야별로 가장 부패한 분야를 묻자 일반 국민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분야를 꼽았다. 외국인은 종교 단체, 공무원은 언론 분야를 각각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사회의 공정 수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43.3%, 기업인의 45.1%, 전문가의 41.6%가 각각 불공정하다고 대답한 반면, 공무원은 14.6%만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5.4%였다.

공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반 국민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제시했고, 외국인은 '경제·사회적 분배의 공정성'을 들었다.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인식의 차이가 컸다. 일반 국민과 기업인은 각각 33.1%, 44.0%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으나 공무원은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1.4%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그 결과 일반 국민 60.5%, 기업인 48.4%, 전문가 59.3%, 외국인 58.8%, 공무원 76.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코로나 백신 내년 2월 의료기관 종사자·요양시설 노인부터 접종

접종계획 내년 1월 발표

정부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2~3월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등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백신이 국내에 공급되는 내년 2~3월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1월)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접종계획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큰 틀의 접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체계 기능 유지를 위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한다"면서 "100만명 내외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목표는 ▲보건의료체계 및 국가필수기능 유지 ▲이환율 및 사망 감소 ▲지역사회 전파차단 등 세 가지로, 정부는 이 큰 원칙에 따라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가운데 먼저 접종을 받게 될 대상자를 선정했다.

현재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로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19~64세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인 만성 질환자, 소아 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별 공급 시기와 효과성, 유통·보관방법 등을 고려해 연간 대상자별 세부 접종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내년 2~3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서 적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까지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내년 1~3분기에 불량이 많이 집중된 상황이라 접종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접종이 이뤄져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첫 확인...전파력 1.7배 '비상'

영국에서 급속도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처음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 방역 대응에도 그만큼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는데 이보다 앞서 입국한 사람한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의 검체에서 모두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다가 검출됐으며, 입국 당시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생활을 해 온 만큼 지역사회와 접촉은 없었다.

방대본은 이들 가족으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귀국 항공편 기내에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일가족과 별개로 영국에서 지난날 8일과 이달 13일 입국한 다른 일가족 4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뒤 세계 곳곳으로 확산 중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했다. 중동에서는 레바논과 요르단 등에서 확인됐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에서도 발견됐다. 미주 대륙에서는 현재 캐나다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상태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로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다가구 및 주택용지 ※ 주거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영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소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금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리바리 마을변방 정남향 편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금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응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금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봉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홀라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위해화장품 회수

「화장품법」 제5조의2에 따라 아래의 화장품을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미엘 퓨어민트, 미엘클래식, 양주르45몰티슈 양주르 실키 몰티슈
나. 제조번호: 미엘퓨어민트(20.10.08.299.G1) 미엘클래식(20.10.06.599.G1) 양주르45몰티슈(20.10.06.196.G1) 양주르실키몰티슈(20.10.09.130.G1)
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변형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1년
라. 회수 사유: 상기 제품(제조번호) 일부에서 미생물기준 한도 초과
마. 회수 방법: 방문, 택배
바. 회수 영업자: (주)지크리엔텍
사. 영업자 주소: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102
자. 연락처: 061-373-5118
저. 그 밖의 사항: 위해화장품 회수 관련 협조 요청
1) 해당 회수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화장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0년 12월 1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0년 12월 17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주식회사 성원
광주 남구 효천2로가길 13-1, 113호 (임암동, 에이치씨타워)
청산인 정 현 우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용호(780223-XXXXXX)
• 최후주소: 전남 장성군 진원면 진원1길 34
피상속인 망 박용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 단1588호로 신청하여 2020년 12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2월 29일
• 상속인: 박효상(501114-XXXXXX)
전남 장성군 진원면 진원1길 34
• 신고기간: 2020. 12. 29. ~ 2021. 3. 9.
• 채권신고처: 상속인 박효상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행구독 (062)220-0550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2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5-5530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안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5-5530
- 백 은 651-1833
- 봉 선 675-5530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3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